



연대? 우수암?...“도대체 어디야”

‘버스정류장 중복 명칭에 헛갈린다’ 민원 잇따라 도 “관광객들 혼란 우려... 빠른시일내 문제 해결”

제주지역 일부 버스정류소들의 명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청 누리집 신문고에 동일 명칭의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게시자는 “제주시 애월읍의 ‘우수암상동’ 버스정류장을 찾아갔지만 동일 명칭의 정류장이 인근에 4곳이나 있어 애를 먹었다”며 “심지어 각 정류장에는 고유번호도 표기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곧바로 누리집에는 ‘나도 버스정류장을 찾다가 허탕’이라는 제목의 민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민원인은 “제주버스 앱에서 경로를 검색해 ‘연대마을(동)’ 버스정류장을 찾아갔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며 “인근 500여m를 돌아다닌 끝에, 주민들에게 물어봤으나 연대마을(동)이라는 정류장 명칭은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혼란은 현장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실제 지난 29일 제주시 외도2동의 연대마을 버스정류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연대마을’이라고 불리는 버스정류장 3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중 2곳은 서로 마주 보는 방향에 위치해 있었지만 1곳은 800여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심지어는 정류소번호가 적혀있는 스티커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버스 안내 앱에서는 ‘연대마을’을 동·남·북 등으로 구분했지만, 실제 버스정류장 표지판에는 모두 연대마을만 적혀 있었다.

통상적으로 버스정류장의 명칭

은 관공서나 아파트 등 큰 건물을 활용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부터 인근에 큰 건물이 없거나, 마땅히 명칭을 할만한 곳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옛 마을 이름 등을 활용하면서 동일한 명칭이 다수 붙여지고 있다.

행정당국은 이 같은 불편사항을 인지했으며, 현재 민원이 제기된 장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만 주로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관광객이 늘면서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내 모든 정류소를 대상으로 번호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했지만, 시간이 오래돼 일부 정류소에서 떨어진 것 같다”면서 “현장을 방문, 스티커도 부착하겠다”고 했다. 김채현기자



“불법촬영사건으로 교단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중등교사노동조합은 2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피해 교사의 탄원서에 대한 대독도 이뤄졌다. 피해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민원인 제자의 불법촬영 사건으로 인해 교단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상국기자

어린이날 황금연휴... 17만명 ‘제주로’

전년대비 56% ↑... 中 노동절·日 골든위크 외국관광객도 2만여명

올해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는 17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전망이다. 이 기간 중국과 일본의 황금연휴로 불리는 중국 노동절(5월 1~5일)과 일본 골든위크(4월 27일~5월 6일)도 맞물려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제주 관광업계가 분주한 모습이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17만 2000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42명)에 견줘 56.3% 증가한 수치다. 일별

로는 3일 4만8000명, 4일 4만8000명, 5일 3만6000명, 6일 4만명이다.

이 중 14만8100명(국내선 13만6000명, 국제선 1만2100명)이 하늘길을, 2만3900명이 바다길을 이용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도관광협회는 “지난해 5월 4~5일 강풍 특보와 풍랑주의보로 인해 항공기 149편, 선박 6편이 결항해 제주 입도 관광객이 당초 예상치(17만4000명)를 크게 밑돌았다”며 “올해는 기상악화 등 변수가 없는 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소영기자 cosorong@ihalla.com

또 이 기간과 겹치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기간에는 2만 3000여명에 이르는 중국·일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관광협회는 해당 기간 중국인 관광객 2만2600여명과 일본인 관광객 590여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3296명)보다 576% 늘어날 것으로,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593명)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서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

80대 여성 최근 고사리 채취 나섰다가 발현

최근 5년 환자 49명 발생

최근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에 나섰던 80대 여성이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다.

제주도는 도내서 올해 첫 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SFTS는 잠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소화기증상(구토·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증

상을 나타낸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SFTS 감염자는 49명 발생했으며 6명이 사망했다.

올해 첫 환자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로 4월 초부터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을 해오다 지난 22일부터 어지러움과 식욕부진,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해 검사한 결과 지난 26일 최종검사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A씨는 현재 제주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SFTS를 매개하는 잠진드기는 주로 숲과 목장, 초원 등에 서식하며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제주지역은 환경 특성상 봄철 고사리 채취와 오름 탐방 등 야외활동 여건이 용이해 매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SFTS 최선의 예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진드기는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잠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동승자 사망 음주운전 30대 검찰 송치

음주운전 하다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

전 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47분쯤 제주시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전

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으며, 시속 130km로 질주하는 등 위험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채현기자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 컨트롤타워 수립

도교육청 ‘마약류 예방 대응 사안처리지원단’ 구성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마약 사안을 처리,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인 ‘마약류 예방 대응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약류 예방 대응 사안처리지원단은 도교육청 체육건강과가 주관하며 제주도 및 제주경찰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한라대학교 등과 협업해 운영된다.

지원단은 중독 예방 교육과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마약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 현장에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 마약류 예방 특별교육과 정서 지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마약범죄가 이슈되고 있다. 관계기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 마약류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강다혜기자

“학교현장 목소리 귀기울여 늘봄학교 문제 해결할 것”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늘봄학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꾸린 ‘늘봄학교 추진 자문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늘봄학교 추진 자문단은 늘봄학교 교감 대표 4인,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제주교사노조 대표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 대책 공유가 이뤄졌다. 강다혜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집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 국제보청기(국제보청기), 한라체육관, 일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전부터 육성과 뿌리손상 방지
▶ 미숙시작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적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을 종자를 파종해서 키우기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부터 육성에 좋으며 미숙시작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굴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론 / 미니향

푸른지게농장은 은 중저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 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론 ● 제라론

※ 포트묘목 생근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